

서반아어 자음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

-한국인의 서반아어 자음습득 과정을 중심으로-

박지영 (서울대)

<차례>

- | | |
|------------------------|----------------|
| 1. 머리말 | 4.2 조사 내용 및 방법 |
| 2. 서반아어 발음의 일반적인 성격 | 5. 조사 자료 분석 |
| 3. 한국어와 서반아어의 자음 음소 비교 | 5.1 파열음 |
| 3.1 음소 목록 및 변이음 양상 대조 | 5.2 마찰음과 파찰음 |
| 3.2 자음 음소의 출현 빈도 | 5.3 비음과 유음 |
| 4. 서반아어 자음의 음가 조사 | 6. 맺음말 |
| 4.1 조사 대상 | |

<Abstract>

A Phonetic Study of Spanish Consonants -On the Process of Koreans' Spanish Consonants Acquisi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Koreans' Spanish consonants pronunciation with an emphasis on describing the phonetic differences of Korean speakers and Spanish speakers.

40 Spanish words were chosen for the speech sampling, and 10 Spanish majoring Korean students from Seoul or Kyunggi Province and 3 Spanish speakers from Castile, Spain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The most noticeable phonetic differences of Korean speakers' pronunciation comparing with Spanish speakers are abstracted as follows:

- 1) The voiced stops are pronounced voiceless or weak voiced.
- 2) The voiced stops are slightly aspirated.
- 3) The length of voiceless consonants is quite longer than the length of proceeding vowel.
- 4) Fricatives and affricates are somewhat fronter, and weaker in the degree of friction.
- 5)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geminate dental lateral /l/ such as 'pelo' and to vocalize palatal lateral /ʎ/ such as 'calle'.
- 6) Unlike in Spanish speech flap [ɾ] and trill [r] are pronounced similarly in Korean speech.

1. 머리말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인의 서반아어 자음의 발음 실태를 조사하여 자음 음가의 음성학적 특성과 문제점을 고찰, 분석, 기술함으로써 한국인으로 하여금 좀더 정확한 서반아어 자음 발음에 접근토록 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서반아어 발음에 대한 음성학적인 연구가 별로 없었다. 본고는 한국인에 대한 서반아어 발음교육에서 나타나는 제 문제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기초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고찰의 범위를 우선 자음에 국한하기로 한다. 서반아어 모음은 5모음 체계로서 비교적 단조롭고 한국어의 음소 목록 및 그 변이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서반아인과 서반아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들의 서반아어 자음 발음에 대한 녹음자료들 모아 필자와 서반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청각 판단에 의해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항목에 있어서는 실험기기를 사용하여 비교 검증 및 통계 처리를 하였다. 음향적인 실험에는 Kay사의 Digital Sona-Graph 7800을 이용하였다.

동일한 음성 환경에서 자음의 발음을 비교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나, 실제 언어상에 나타나지 않거나 잘 사용되지 않는 낱말들은 가능한 한 배제하였으므로, 자음의 앞뒤에 있는 모음의 환경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2. 서반아어 발음의 일반적인 성격

서반아어를 사용하는 인구도 많고 사용되는 지역 또한 방대하여 지역적으로 발음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서반아어에서 쓰이는 발음이 중남미 대륙의 발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서반아 본토내에서도 방인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Andalucía, Canarias 및 중남미에서는 /θ/를 /s/로 대치하여 발음하는 seseo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자음 음소의 수도 줄어들게 된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s/를 /θ/에 가깝게 발음하는 ceceo 현상은 Andalucía 지방의 일부에서 나타나지만 그 지역이 분명하게 한정지어진 것은 아니고 어린이의 말에서 자주 나타나는 개인적인 발음의 결점으로 여겨지는 현상이다. 경구개 설측음 /ɲ/를 마찰음 /j/로 대치하여 발음하는 yeísmo 현상은 서반아의 Extremadura, Murcia, Andalucía, Canarias 지방과 중남미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그밖의 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서반아어에는 /i,e,a,o,u/ 5개 모음이 있는데 이 중에서 /e,a,o/는 높이는 위치와 환경에 따라 변이음을 갖는다. 모음은 장단의 구별없이 단모음에 속하고 음색은 정확하고 명료하다. 서반아어의 모음은 구음으로 비음이 없으나 두 개의 비음 사이에 있을 때는 이 자음의 진동 인장으로 비음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음운상의 가치는 없다.

서반아어의 자음은 모음보다 음가의 변화가 더욱 심하다. 여러 언어에서 /s/와 /z/가 유,무성의 쌍을 이루지만, 서반아어는 근대 초기부터 /z/의 무성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b/와 /v/의 경우도 /v/가 근대 초기에 없어서 둘 다 [b]나 [β]로 발음된다.

3. 한국어와 서반아어 자음 음소 비교

3.1 음소목록 및 변이음 양상 대조

한국어의 자음에는 19개 음소 즉,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ㄷ, ㅂ, ㅍ, ㅅ, ㅇ, ㅈ, ㅊ, ㅋ, ㆁ, ㅍ, ㅎ, ㄱ, ㆁ, ㅈ, ㅊ, ㅋ, ㆁ, ㅍ, ㅎ/ 이 있고, 서반아이어의 자음에는 /p,b,t,d,k,g,f,θ,s,j,x,tʃ,m,n,ŋ,l,ʎ,r/의 19개가 있다.

서반아이어에서는 어두에 나타나지 않는 자음 음소들(/n,r/)이 있고, 어말에 오는 자음 음소는 7개(/d,n,θ,s,x,r,l/)로 이 중에서 /s/와 /x/만이 무성이고 /x/는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필자 나름대로 3단계로 분류하여 보기로 한다. 한국어 자음 음소 목록에 없고, 한국인이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을 I형으로 하고, 한국어 음소의 변이음에 존재하는 것과 조음방법 및 위치를 다소 조정시켜 수정이 가능한 것을 II형이라 하며, 한국어와 서반아이어 양쪽에 다 있는 음을 III형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3.2 자음 음소의 출현빈도

한국어 자음 음소들의 출현 빈도는 한국어 고유 어휘를 대상으로 한국어 음소체계를 구성하는 음소들의 상대적 출현도를 통계적으로 측정 한 논문(김경일 1985)에서 얻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서반아이어 음소 출현 빈도 자료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표준 구어체를 사용하여 자기 다른 내용으로 쓴 25장의 편지를 표본 자료로 조사한 수치를 보여주는 Llorach, E.A.(1983)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두 조사의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각 음소들을 조음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 자료를 택하였다.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 음	유 음
한국어	39.6	9.8	11.1	26.6	12.9
서반아이어	35.3	22.4	0.8	17.2	24.3

표 1. 자음 음소 출현율 (%)

4. 서반아이어 자음의 음가 조사

4.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성격에 비추어, 서반아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서반아이어를 배우고 있는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반아이어 사용 지역이 방대하여 발음상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나므로 서반아 본토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였다. 서반아인 피조사자는 한국에 와 있는 서반아인들 중에서 Castilla지방 출신을 선택했고, 사회 계층별 분류는 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척도로 학력을 고려하여 대졸이상 학력자 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한국인 피조사자는 서울, 경기 지역의 비교적 표준 발음을 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여 대학에서 서반아이어를 전공하고 있는 (1,2학년)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을 조사하였으며 여기서 성별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4.2 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에 사용한 자료는 구조적 제약없이 19개의 서반아이어 자음 음소가 모두 올 수 있는 둘째 음절초(모음간이나, 유성 자음과 모음사이)의 경우로 한정하여 실험에 용이하도록 최소 대립이인 낱말들 및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낱말 40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자

료들에서 파열음, 마찰음 등을 중심으로 음향적인 측정과 조음시간 측정을 통하여 조음상의 문제점 및 조음습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정된 피조사자들에게 40개의 조사 대상 낱말을 보통 속도로 자연스럽게 읽도록 하여 녹음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녹음한 자료를 우선 필자의 청각 판단에 의존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청각적인 판단만으로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없는 부분들은 실험기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서반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한국 학생들의 서반아어 발음을 들려 주고, 발음의 정도를 3단계로 나누어 표기하게 하여 잘못된 부분의 이유를 기록하게 한 다음, 지적된 사항을 분석시 참조하도록 하였다.

5. 조사 자료 분석

5.1 파열음

청각 판단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서반아인들은 모음간의 유성음(예: vago의 /g/)을 적극적인 유성으로 발음하고 (100%), /b/는 [β], /d/는 [ð], /g/는 [Y]와 같이 마찰음으로 발음하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덜 적극적인 유성으로 발음하여 무성음과 비슷한 음가를 낸다고 분석하였다(표 2. 참조).

N=10 (%)

	적극적인 유성	약한 유성	무 성
/abo/	50	10	40
/oda/	30	30	40
/ago/	20	20	60

표 2. /VCV/에서 유성음의 유성 정도 (한국인)

둘째, 한국 학생들은 유성 자음을 강하게 발음하고 기식음 발성을 많이 하여 'goda'의 /d/를 [d^h]내지 [t^h]에 가깝게 발음하며,

셋째, 서반아인들은 낱말을 부드럽게 이어서 발음하는 반면, 한국 학생들은 음절 음절을 끊어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음향적 측정에서는 /VCV/에서 유성음의 구강 폐쇄 기간 중의 유성의 흔적을 wide-band spectrograms에서 얻었다.

자음 발음시에 나타나는 기식의 정도에 관하여 살펴 보면, 유성 자음을 발음할 때 서반아인과는 달리 한국인에게서 기식음이 나타났다. 유성음을 강하게 발음한다는 것은 바로 이 기식음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무성 파열음의 경우는 서반아인의 발음에서 기식현상이 약 2-3배 더 많이 나타났다.

'capa, gola, vaco, cabo, goda, vago'의 6개 단어에서 /VCV/의 앞의 모음, 자음, 뒤의 모음의 조음시간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얻어진 현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

첫째, 한국인과 서반아인이 모두 무성 자음의 조음시간이 이에 대응하는 유성 자음보다 약 1.7-2.4배 정도 더 길다.

둘째, 한국인은 무성 자음을 발음할 때 서반아인에 비해 자음의 길이가 앞의 모음의

길이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인은 뒤의 모음에는 변화가 적고 앞의 모음에 변화가 큰데 반해, 서반아인은 한국인의 경우처럼 큰 폭은 아니지만 앞의 모음에는 변화가 적고 뒤의 모음에는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5.2 마찰음과 파찰음

마찰음과 파찰음에서는 청각 판단과 포르만트를 이용한 조음점의 확인, 마찰의 정도 및 기식의 정도를 중점적으로 알아 본다.

청각 판단에서 얻은 한국인의 발음 결과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tʃ/의 발음이 경구개 치조음 [tʃ]에 가깝게 들리고, 이러한 현상은 뒤의 모음이 개모음인 경우에 더 두드러졌다.

둘째, 음소 /j/의 발음이 반모음의 음가와 비슷하게 나타나며,

셋째, /x/를 발음할 때 기식음이 상당히 뒤따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향적 측정에서는 /s/와 문제성이 있는 /x, j, tʃ/의 발음을 중점적으로 측정하였다.

/x/의 발음에서는 한국인이 서반아인에 비해 기식음이 약 2배 가량 많이 나왔고, 스펙트로그램상에 나타난 마찰의 강도도 서반아인은 강한 반면, 한국인은 본국인의 50% 정도의 강도를 냈다.

/s/에서는 마찰음과 기식음의 차이가 각각 많이 나지 않고 있으나, 마찰의 강도는 /x/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경우 그 정도가 낮게 나타났고, 낮은 주파수대부터 마찰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한국인의 /s/ 조음 위치가 서반아인보다 앞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tʃ/에서는 무성 파열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강 폐쇄 시간이 길므로 마찰음의 길이가 짧아지고, 기식음의 길이에는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마찰의 강도는 한국인이 약간 약하다.

5.3 비음과 유음

비음 /m, n, ŋ/는 청각적인 판단에서 아무런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고, 가장 무리없이 발음하고 듣기에도 어색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어의 음소 /ㄴ, ㅁ/과 (/ŋ/는 /ㄴ/이 /i/나 /j/앞에 올 때) 조음 위치 및 방법이 거의 같기 때문으로 본다.

청각 판단에서 얻은 한국인의 발음 결과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치조 설측음 /l/를 발음할 때 조음 위치는 양호하나, 자음중첩 현상이 일어나고,

둘째, 경구개 설측음 /ʎ/를 발음할 때 모음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셋째, 대부분(90%)의 학생들이 뒤김소리를 떨림소리에 가깝게 발음하였다.

6. 뱃음말

5장에서 한국인의 서반아어 자음 발음상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을 조음방법에 의한 분류를 통해 수정, 보완점을 찾아보면, 우선 서반아어의 파열음에서 유성, 무성의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유성음을 발음할 때는 이 자음이 시작되기 전부터 성대를 진동

시키고 부드럽게 이어서 발음하면 무성화 내지는 약한 유성음의 조음을 피할 수 있다. /VCV/에서 무성 자음의 길이가 긴 것은 자음 조음시에 수반되는 구강 폐쇄 지속시간을 줄여 발음하면 해결된다.

마찰음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마찰의 강도가 약하므로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음 기관을 좀더 접근시켜서 마찰음을 강하게 발음시켜야 한다.

과찰음인 /tʃ/는 무성 파열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VCV/에서 조음시간이 긴데, 이 또한 구강 폐쇄 시간을 줄여 발음하면 되고, 조음위치가 조금 앞으로 나와서 발음되어 [tʃ]에 가깝게 났으므로 혀를 뒤로 빼서 설면이 경구개에 닿게 하여 혀의 모양을 볼록하게 하고 발음하면 된다.

유음의 경우는 /VCV/에서 /l/는 자음중첩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l/의 조음시간이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자음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발음한다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반아어 발음교육을 할 때, 한국어와 서반아어의 음소 목록을 비교하여 한국어에 없는 서반아어 음소, 한국어 음소의 변이음에 존재하는 음, 조음 위치 및 방법을 다소 수정하여 발음이 가능한 음 등으로 계층을 나눠 교육하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앞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서반아어의 올바른 발음 교육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음성학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일(1985), "한국어 음절 구조에 관한 통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복(1974), "국어의 말토막과 자음의 음가", 한글 제 154호, pp. 3-14.
 _____(1981), 국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 과학사.
 조용국(1981), "서반아어 발음 학습상의 문제점", 말소리 2호, pp. 36-44, 대한음성학회.
 허 용(1982), 국어 음운학, 정음사.
 Borzone de Manrique, A.M. & Signorini, A. (1983), "Segmental Duration and Rhythm in Spanish", *Journal of Phonetics* 11-2, pp. 117-128.
 Chen, M. (1970), "Vowel Length Variation as a Function of the Voicing of the Consonant Environment", *Phonetica* 22, pp. 129-159.
 Delattre, D. (1965), *Comparing the Phonetic Features of English, French, German and Spanish*, George G. Harrap & Company Ltd., London.
 Gaya, S.G. (1978), *Elementos de la Fonética General*, 5a ed., Editorial Gredos.
 Harris, J.W. (1969), *Spanish Phonology*. The M.I.T. Press, Cambridge, MA.
 Lapesa, R. (1983),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9a ed., Editorial Gredos, Madrid.
 Llorach, E.A. (1983) *Fonología Española*, 4a ed., Editorial Gredos, Madrid.
 Navarro Tomás (1980), *Manual de Pronunciación Española*, 20a ed.,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Madrid.
 Quilis, A. & Fernández, J. (1982), *Curso de Fonética y Fonología Española*, 10a ed.,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Madrid.
 Zhi, M.J. (1982), "Studies on the Phonetic Properties of Korean Obstruents", Umeå Universitet, Umeå.